

# 축구

10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K리그1 8라운드 | 상주 잡고 3연승 질주...전북, 단독 선두로

## 골! 골! 골! 되살아난 '승리 DNA'

임선영·이동국·로페즈 연속골 작렬 8경기 16골...멈추지 않는 닥공 본능 올 첫 선두...FA컵 탈락 아쉬움 떨쳐



전북 현대의 '승리 DNA'가 살아나고 있다. 전북은 20일 상주 상무 원정에서 3-0 완승을 거두고 올 시즌 처음으로 선두자리를 차지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특유의 '승리 DNA'가 다시 깨어났다. K리그1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가 마침내 1위 자리를 탈환하고 본격적인 선두 경쟁에 불을 붙였다.

조세 모라이스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전북은 20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상주 상무와 K리그1 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3-0 쾌승을 거뒀다. 동시에 17일 끝난 FA컵 32강전에서 K리그2 FC안양에 0-1로 패한 아쉬움도 훌훌 떨쳐냈다.

정규리그 3연승과 함께 5경기 연속 무패(4승1무)를 내달린 전북은 승점 17을 쌓고 순위 경쟁상대인 울산 현대를 따돌린 뒤 21일 또다른 경쟁 상대인 FC서울이 승수

쌓기에 실패하면서 8라운드를 1위로 마쳤다. 전북이 라운드를 단독 선두로 마감한 것은 올 시즌 처음.

전북은 전반 24분 임선영의 첫 골로 리드를 잡았고, 전반 39분 이동국이 추가골을 터트리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후반에도 멈추지 않는 '닥공(닥치고 공격)' 본능을 뽐낸 전북은 후반 14분 로페즈의 썩기 골로 대승했다.

무엇보다 다양한 공격 루트가 큰 힘이 다. 전북은 8경기에서 16골을 뽑았다. 경기당 평균 두 골씩 꾸준히 뽑았다. K리그는 각 구단들의 공격축구를 유도하기 위해 골 득실보다 다 득점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정 공격수가 홀로 독주하지 않는다. 최전선부터 중원까지 화력이 고루 분포됐다. 토종 골잡이 김신욱이 4골·1도움을 올린 가운데 워밍 포워드 로페즈가 3골·2도움을 올렸다. 여기에 베테랑 스트라이커 이동국과 또 다른 측면 공격수 문선민이 각각 두 골씩 성공했다. 중원 자원으로 전방을 지원하는 임선영도 로페즈와 똑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북 벤치는 광장히 든든하다. 어느 누구를 투입하더라도 제 역할을 100% 수행하기 때문이다. 선수단 운용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반대로 상대 입장에서는 전방위적인 위협이 두렵다. 대인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수들) 모두가 우리의 철학을 이해하고 있다. 공격 본능이 항상

깨어있다"는 것이 모라이스 감독의 설명이다.

전북은 FA컵 안양전에서 브라질 골잡이 아드리아노가 큰 부상을 입었다.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이 나왔다. 수술을 하고 회복까지 넉넉히 6개월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그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드리아노가 공격진에 새로운 틀을 가져오는 자원이란 점에 이견은 없으나 전북은 '아드리아노 없는' 상황이 아주 낯설지 않다. 이동국, 김신욱으로도 우위를 전할 수 있다고 모라이스 감독은 판단하고 있다.

전북은 중요한 승부처에 돌입했다. 국내·외를 넘나드는 홈 2연전을 앞두고 있다. 24일 우라와 레드(일본)와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에 이어 28일 뜨겁게 선두경쟁을 벌이는 FC서울을 불러들인다. 피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 헐투'를 앞둔 전북은 되찾은 상승세가 반갑기만 하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프로축구 경기결과	▶ 20~21일
대구	대구 3 : 0 포항
상주	상주 0 : 3 전북
창원	경남 3 : 3 수원
울산	울산 0 : 1 성남
제주	제주 2 : 4 강원
상암	서울 0 : 0 인천



포항 최순호 감독 제주 조성환 감독

### 포항·제주 '부진의 늪' 감독 교체론 스멀스멀

포항 "내주 논의" 제주 "지켜본다"

K리그1 '전통의 명가' 포항 스틸러스와 제주 유나이티드가 위태롭다. 올 시즌 좀처럼 승리를 쌓지 못하는 가운데 굳건하던 현장 리더십까지 흔들리는 모양새다.

'하나원큐 K리그1 2019'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여러 사령탑들로부터 강력한 닥공 호소로 꼽히기도 했던 포항은 예상과 달리 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10위(승점 7·2승1무5패)까지 내려앉았다. 지난해 든든한 전력 보강과 특유의 공격축구를 앞세워 4위를 차지했지만, 올 시즌에는 8경기 득점이 7점에 그칠 만큼 참이 무더진 상태다. 제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K리그1 12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승리가 없다. 4무4패. 그나마 17일 치른 '2019 KEB하나은행 FA컵' 32강 강등시정 원정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웃었지만, 21일 강원FC와 홈경기에서 2-4로 패하며 첫 승 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처럼 부진이 길어지면서 현장 리더십마저 흔들리게 됐다. 축구계 안팎에선 벌써부터 두 구단의 내부 결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포항은 최순호 감독과 동행 지속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구단 고위 관계자는 21일 전화통화에서 "현재는 선수단 분위기를 추슬러야 하는 시점"이라면서도 "내주 초 현장 리더십 문제를 놓고 구단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를 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어떠한 답도 정확하게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포항은 지난해 11월 최 감독과 2+1년 재계약을 맺은 바 있다. 최하위권으로 처진 제주는 포항과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같은 날 전화통화에서 구단 관계자는 "8라운드 경기를 이제 막 끝냈다. 시즌 역시 초반인 만큼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FC서울 골키퍼 양한빈(왼쪽 2번째)이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인천 유나이티드전에서 경중 뛰어올라 공을 잡아내고 있다. 이날 서울과 인천은 치열한 공방전 끝에 0-0으로 비겼다. 상암 | 뉴스1

### '인천 징크스'에 발목 잡힌 서울

인천 상대로 최근 5경기 2무3패 열세 또 0-0 무승부...단독 선두 기회 놓쳐

FC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초반 판도는 극과 극이다. 지난해 강등위기를 경험한 서울은 완벽한 반전에 성공했다. 반면 인천은 바닥을 헤매고 있다.

두 팀은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정규리그 8라운드에서 충돌했다. 입장

이 달랐다. 서울은 2017년 7월 이후 2년여만의 3연승을 노렸고, 인천은 5연패 탈출에 사활을 걸어야 했다. 최근의 기류답게 90분은 홈 팀의 우세 속에 흘렀다. 경기조율 능력이 탁월한 오스마르가 스리 백의 한 축을 맡은 서울은 중원에 알리바예프, 전방에 페시치를 배치시켜 총공세를 펼쳤고, 인천은 최소 6명이 하프라인 아래에 머무는 극단적인 수비축구를 했다.

일방적으로 두드린 서울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경인더비'로 명명되는 인천과의

대결은 언제나 쉽지 않았다. 지난해 4경기 무승(2무2패)을 포함해 최근 2무3패로 열세였다. 최용수 서울 감독은 "짜증스럽다. 우릴 만나면 힘을 발휘하는 모한 팀"이라고 경계했다.

서울에 이날 경기는 몹시도 중요했다. 무패를 달리던 울산 현대(승점 17)가 전날(20일) 홈에서 성남FC에 0-1로 패해 승점 16의 서울은 승리하면 단독 선두에 오를 수 있었다. 최 감독은 "올해 가장 중요한 승부처 중 하나"라며 각오를 다졌다. "기를 꺾지 못하게끔 계속 눌러줘야 한다"는 나름의 복안도 전했다.

하향곡선을 그리는 인천에 적지에서 쟁기는 승점은 충분히 만족스럽다. 최근 결

별한 은 안테르센 감독(노르웨이)을 대신한 임종용 감독대행은 일주일 내내 서울 원정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준비했다. 고광민~고요한의 측면을 저지하고, 오스마르부터 시작된 패스 줄기를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임 감독대행은 "최근 서울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원정에서 이긴 기억도 있다"고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한 쪽은 서울이었다. 앞선 3경기에서 한 골도 뽑지 못했던 인천의 답답한 침묵은 계속됐지만 몸을 사리지 않는 육탄방어로 상대의 공세를 막았다. 연패 탈출과 함께 수확한 승점 1은 그 어느 때보다 값진 결실이었다.

상암 | 남정현 기자

### 기성용, 유럽 무대 300경기...한국선수로는 4번째

사우샘프턴전 골대 강타...3-1 승리

기성용(30·뉴캐슬)이 유럽 무대 10년 만에 3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다.

기성용은 21일(한국시간)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제임스파크에서 열린 사우샘프

턴과 2018~2019 잉글리시프리미어리그(EPL) 35라운드 홈경기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장했다. 이날 출장으로 기성용은 유럽 무대 통산 300번째 출장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차범근, 박지성, 송홍민에 이어 유럽 무대에서 300경기 이상을 소화



기성용

한 4번째 한국선수 기록이다.

2009년 국내 프로축구 FC서울을 떠나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SPL) 셀틱에 입단하며 유럽 커리어를 시작한 그는 2012년부터 EPL에 입성해 선덜랜드, 스완지시티 등을 거치며 10년간 유럽 리그에서 뛰었

다. 한때 중국리그 이적설이 돌기도 했지만 꾸준히 유럽에서 선수 경력을 쌓았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한 기성용은 후반 10분 강력한 오른발 슈트를 날렸지만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팀은 3-1로 이겼다. 2연패 뒤 2연승을 거둔 뉴캐슬은 승점 41(11승8무16패)을 마크하며 12위에 올랐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